

아기를 기다리며

Awaiting the Baby

이사야 9:1-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1월 28일 대림절 설교

¹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²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³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시니 ⁴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멩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⁵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물은 복장이 불에 쏘 같이 사라지리니 ⁶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⁷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기다리는 인생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한 가지가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사람을 기다리고 일하러 간 남편이나 아내, 또 학교에 간 아이들을 기다리고,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파란 불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아플 때는 뭘 기다립니까? 낫기를 기다리지요. 퇴원할 날을 기다립니다. 조국이 다른 나라에 먹혔을 때는 광복의 그 날을 기다렸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다시 하나가 될 날을 기다립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경제 좋아질 날도 기다리지만 부시 대통령 때처럼 세금 깎아준다는 발표도 은근히 기다려집니다.

왜 기다립니까? 제 시간에 안 오니까 기다립니까? 그런 경우도 많지요. 기다림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금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시간아 멈추어 다오” 하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자라는 게 채워질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즐겁겠지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다림 속에는 인간의 타락한 심리도 어느 정도는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비면 어떻습니까? 그제야 깨닫고는 후회도 하면서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늘 이렇다 보니 별로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주어진 걸 누리며 감사하기보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픈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프고 다치고 죽습니다. 겨루는 세상 싸우는 세상입니다. 속이고 빼앗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눈물도 나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상처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감사할 줄 몰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불평분자라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갖가지 결핍과 아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 사람들

본문에 보니 오래 전에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잘 모르지만 아프니 기다릴 밖에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 사람들은 경멸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이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니까?

“그들의 무겁게 멘 멩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이들은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강제노동을 하는데 조금만 느리게 움직여도 채찍으로 어깨를 때리고 몽둥이로 등짝을 내려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 아직 나라도 없던 시절 이웃 미디안 민족에게 받았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민족은 기드온이 지도자로 나타날 때까지 여덟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하면 봄이 되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군사를 몰고 와서 밭을 뒤집어엎어 버렸습니다. 저 먹자고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필요도 없는 걸 나도 못 먹게 밭을 망쳐 놓은 것입니다. 가축도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도망을 가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풀뿌리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는 사람이 살던 곳은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고통은 어두운 것이면서 또 죽음입니다. 어떤 종류든 아픔은 곧 죽음입니다. 반쯤 죽었다 하는 말 아시지요? 살긴 살았는데 생명력이 온전하지 않으니 반쯤 죽었다, 반만 살았다 합니다. 고통이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생명이 줄어듭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삶을 백 퍼센트 누리지는 못합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답답하든 괴롭든 아픔은 다 삶, 곧 생명을 위축시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고통 없는 날을 바라는 것은 곧 생명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살려고 났으니 삶을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가 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플 때 바라는 건 안 아픈 것 하나뿐입니다. 무거운 멩에가 내 목을 누르고 있다면 그 멩에가 벗어질 날만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아 아프다면 안 아플 그 순간만 바라볼 것이요 먹을 게 없어 굶는다면 먹어 배부르게 될 그 날만 바라보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날

죽음의 그늘에 있으니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멸시를 당했으니 이들을 멸시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내가 힘든 노예생활을 했으니 나를 노예로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채찍으로 몽둥이로 나를 내리친 사람도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 하였습니다. 기다리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고통 받던 자가 밝은 빛을 보고, 경멸을 당하던 자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이들, 죽음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강제노역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먹지도 못해 배가 고팠는데 이제 추수하는 즐거움도 누리게 마치고 내가 전쟁에 이겨 전리품을 나누는 것 같은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그 날이 오고, 뭘 해야 삶을 되찾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죽이는 사람,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부터 때려잡아야 되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싸움 준비부터 하는데 이건 개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라부터 제대로 서야 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사실 나라가 약해 겪은 것이었습니다. 저쪽은 세력이 강한데 우리는 약하니 욕을 해도 들을 수밖에 없고 밭을 뒤집어도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자 어찌자 하기도 전에 싸움이 끝났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켜 같이 사라지리니.” 적군이 입었던 갑옷 같지요? 물자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태우지 말고 잘 챙겨 놓았다가 다음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웁니다. 그리고 보니 적군의 갑옷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것도 같이 태웁니다. 싸움이 끝났는데 이번만 끝난 게 아니고 영원히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아예 없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전에 죽고 죽이던 사이가 위치만 바뀐 게 아닙니다. 전에 당하던 사람이 이제 군림한다면 고통 받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일이 더 없어야 고통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싸움에 필요한 건 다 태운다 하였으니 그런 세상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아기를 주신다

방법은 아기의 탄생입니다. 전쟁을 없애는데 그 방법은 아기가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썩 같이 타 없어질 건데..... 그 이유가 뭐고 하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전쟁 도구가 다 불에 타기에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나니 전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통도 없어졌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사람은 아기로 날 때 다 명예를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기는 어깨에 통치권을 메셨습니다.

왜 아기일까요? 어른들끼리 싸워 고통이 왔습니다. 또 다른 어른이 끼면 더 싸우겠지요. 아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아기는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이 아기는 인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오십니다. 가능성이기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고통이 없어질 가능성, 어두움이 사라질 가능성, 싸움이 사라질 가능성,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비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름도 여러 개입니다. 아기로 나시지만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하나로 엮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략가입니다. 놀라운 지혜로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실 분입니다 (사 28:29).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게 드러났고 전능하신 분이시니 사람들의 싸움도 얼마든지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기로 오시지만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보호하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영존하신다 하였으니 사람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분입니다.

평강의 왕은 어깨에 맨 통치권과 이어져 있습니다. 통치권을 가졌으니 왕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휘두르는 권력, 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모든 싸움과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또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통치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평화도 더욱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 영원히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오시면 다시는 싸움이 없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아기를 기다림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나는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욕을 들어 분하고 사기를 당해 가슴이 쓰립니다. 그런데 아기가 하나 태어난다고 그 아픔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지금도 남북한이 싸우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 전쟁을 막는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내가 겪는 고통은 그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온 우주와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손가락 조금 다쳐 아픈 그것도 그것이 적어도 아픔이라면 그건 온 우주에 미치는 큰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픔은 어느 것이든 죄에서 온 것이고, 그 죄는 지금도 온 우주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가 고통의 명예를 메고 있기 때문에 내 조그만 마음의 고통 또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관심 쏟으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감이 안 나지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언제 내 손가락까지 챙기시겠나 싶지요? 내가 욕 한 마디 들었다고 온 우주가 떨 이유가 뭐가 싶지요? 실감이 안 나도 사실입니다.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 우주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아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기를 믿어 생명을 얻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제대로 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이런 저런 일이 잘 안 되어 힘이 들거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는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 돌부리에 걸려 무릎을 깨도 우리는 그 아픔과 더불어 그런 아픔을 있게 만든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매 순간 우주를 꿰뚫고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안 올라가고 나이가가라 폭포까지 안 가도 우주의 기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 덕분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는 걸 느끼고 뭔가를 기다리는 그 삶은 우주와 호흡을 나누는 엄청난 삶입니다.

두 가지 사람

인생은 날 때부터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는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죄 지어 밥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기에 그런 죄를 안 지을 세상,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되는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돈 없어 모자란 사람, 건강이 없어 모자라는 병자나 장애인, 학교 덜 다녀 모자란 사람, 권력 좀 없어 아쉬운 사람, 남들은 쉽게도 살더니만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나 한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삶이니 늘 답답하고 아쉽지요. 그렇지만 날 때부터 모자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니 그런 삶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이고 그런 사람은 눈앞에 닥친 고통을 넘어 그 고통의 원인까지 발견할 가능성도 훨씬 더 큼니다.

때로 미봉책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 더 많지요. 문제의 근본은 못 보고 지나갑니다. 발을 조금 빼어 아프면 얼음 갖다 대고 진통제 먹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짧지만 그것도 기다림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사라진 뒤에도 그 고통을 있게 만든 원인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 잠시 사라졌다고 신난다 하는 걸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지요.

난 모자란 게 없다 싶은 사람, 그래서 별로 기다릴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현재를 즐기면서, 기다리며 사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플 때는 안 아플 날을 기다리지만 안 아프면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만사형통 인간도 가끔 보이지요. 부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정말 바라고 바라던 걸 이루면 뭐라 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으니 사는 뜻도 이미 사라진 겁니다.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은 살 뜻도 없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고 살 뜻도 없으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마 시간도 기꺼이 멈추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은 현재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그것보다는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큼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열굴입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모든 어려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중에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중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굳센 믿음, 분명한 소망입니다. 믿음이 됩니까? 잘 될 거라는 믿음 이전에 잘 될 거라고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기가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없애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다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 시리라.”

고통이 없는 그 날을 나도 바라지만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통이 없는 우주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오래 전 아기로 오신 주 예수를 기다리는 날이면서 또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더 잘 기다릴 수 있다면서 일부러 고행도 합시다만 이민 와 사는 우리는 그런 고생 따로 안 해도 충분히 괴롭습니다.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인생을 우리가 다 살지만 기다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에 약속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아야 되겠지요 (롬 8:25).

우리는 다 아픔이 있어 죄를 깨달았고 죄를 알았기에 주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픔이 있는 우리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수경 목사)